

● 그가 온 것처럼 그는 그렇게 되돌아간다. 그러니 그가 애쓴 보람이 무엇이랴? 바람일 뿐!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어둠속에서 먹으며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만 속에서 살아간다.

(코헬렛 5장 15~16절)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알몸으로 갈 수 밖에 없다.” ----- 세르반테스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하느님의 피조물이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물질에 매여 인간다운 삶을 버리고 오만하게 군다. 이는 하느님께 대한 불충이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떠나야 한다.